

전남 중부권



매화 향기속 발갈이 한창

완연한 봄기운을 보인 12일 담양군 남면 인암리 들녘에서 발갈이를 하는 농부와 만개한 매화가 어우러져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농부는 고추와 채소 등을 심을 예정이다. /담양=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영암 ‘성틀봉 토성’ 본격 발굴조사

문화재청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이달 말까지

영산강 유역 고대 성곽 축성시기·유적 특성 파악

고대 마한(馬韓)의 주요 거점으로 추정되는 영암 ‘성틀봉 토성’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가 본격화된다.

문화재청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에 위치한 영암 ‘성틀봉 토성’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연구소는 지난해 추진한 영산강 유역의 고대 성곽 정밀분포조사에서 확보한 추정근거를 토대로 축성시기와 유적 특성에 관한 조사를 지난 9일 시작했다.

주변지역이 한눈에 보이는 구릉에

위치한 영암 ‘성틀봉 토성’은 영산강 유역서는 드문 토성으로,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성의 둘레는 190m이고 높이 2m·폭 1.5m로 비교적 좁다. 또 성 주변에는 영암 시종면 내동리 고분군 등 다수의 옹관(甕棺=시신을 묻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토기관) 고분이 산재해 있다.

연구소 측은 “성틀봉 토성이 마한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한 토성으로 밝혀지면 마한 옹관 고분과의 관계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마한사회 연구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

■영암 ‘성틀봉 토성’ 발굴 조사지역



했다.

한편 나주 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성과를 축적하기 위한 ‘호남지역 문화유산 자원화 학술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강진만 바지락 양식장

모래 250t 직접 살포

강진군이 강진만 바지락 서식환경 개선작업에 발벗고 나섰다.

강진군은 최근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남호와 신전면 송천 등 바지락 양식장 20ha에 모래 250t을 살포했다.

바지락은 완전한 갯벌 층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폐사하기 쉽다. 하지만 모래를 뿌려주면 양질의 바지락이 대량으로 서식하게 된다.

군은 살포된 모래 속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을 3~4년 후에 50t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 2억여원의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다음달 초 연안해역의 간척매립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마량면 농공단지 부근 꼬막 양식장에 황토 2500t을 살포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작곡가 김해송 풍자음악 감상하세요

18일 강진아트홀 ‘만요(漫謔)콘서트’

‘오빠는 풍각쟁이’ ‘청춘벨딩’ 등 선배

1930년대 가수 겸 대중음악 작곡가인 김해송(1911~1950)의 대표적인 풍자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강진에 마련된다.

강진아트홀은 오는 18일 저녁 8시 대공연장에서 ‘만요(漫謔) 콘서트(사진)’(연출 윤종강)를 무대에 올린다. 만요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민중의 삶과 사회상을 코믹한 가사와 선율로 노래해 크게 사랑받았던 대중음악 장르로, 일명 ‘코믹송’(comic song)으로도 불린다.

이번 콘서트는 가장 널리 알려진 ‘오빠는 풍각쟁이’를 비롯해 스윙곡 풍의 ‘청춘계급’, 컨트리(Country)느낌이 물씬 나는 ‘청춘 벨딩’, 우스꽝스런 광경이 그려지는 ‘개고기 주사’ ‘모던가생 점교’ 등 독보적인 만요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콘서트는 김해송 100주년 기념 음반발매 콘서트로 근대 대중음악을 새롭게 조명하고, 20세기 음악



과 21세기 음악의 연결고리로 작용한 만요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티켓은 성인 3000원·청소년 이하 1500원이다.

강진아트홀 박혜숙 큐레이터는 “평소 듣기 어려운 만요를 라이브 연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송은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1916~1965)의 남편이자 한국 최초의 걸 그룹 ‘김 씨스터즈’의 아버지로도 유명하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농협 전남본부 매주 금·토요일

남양 신청사·영산강 죽산보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도·농상생을 위해 매주 금·토요일에 직거래 장터를 연다.

전남지역본부는 매주 토요일 나주시 나주시 다시면에 위치한 영산강 죽산보에서 직거래장터를 연다.

전남지역본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나주시 다시면죽산보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 농·축산물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4대강 농·축산물 토요일 직

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전남지역본부는 14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직거래장터를 관광과 농산물이 어울어진 문화장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장식에서는 농악공연을 식전 행사로 탐방객들을 위한 풍선 날리기, 무료 떡국 제공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제철 농·특산물과 국내 정상급 나주축협의 쇠고기를 맛 볼 수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매주 금요일 남양신청사 지역본부 앞마당에서 ‘금요 직거래장터’를 개장, 지역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관매농협 중심의 전남농협 구현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전남의 우수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해 농가도 돕고 소비자에게 희망을 주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 북

순창 ‘귀농·귀촌 1번지’ 각광

군, 귀농인 조례 만들어 정착민 행·재정적 지원

올해 1차로 39농가에 이사비 등 3900만원 지급

순창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007년 10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순창군에 귀농·귀촌한 도시민은 ▲2007년 44세대(120명) ▲2008년 48세대(123명) ▲2009년 45세대(137명) ▲2010년 103세대(215명) ▲2011년 59세대(142명) 등 299세대·737명에 이른다.

귀농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집수리 및 신축시 최대 500만원, 이사비 100만원, 소득사업비의 50%(최대 2000만원), 현장실습비 1인 1개월 기준 60만원이며, 귀농학교 수강료 1인 1개월 기준 30만원과 하우스 및 특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등 30여개의 자체 주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귀농·귀촌자 지원사업비로 9억4500만원을 확보하고 1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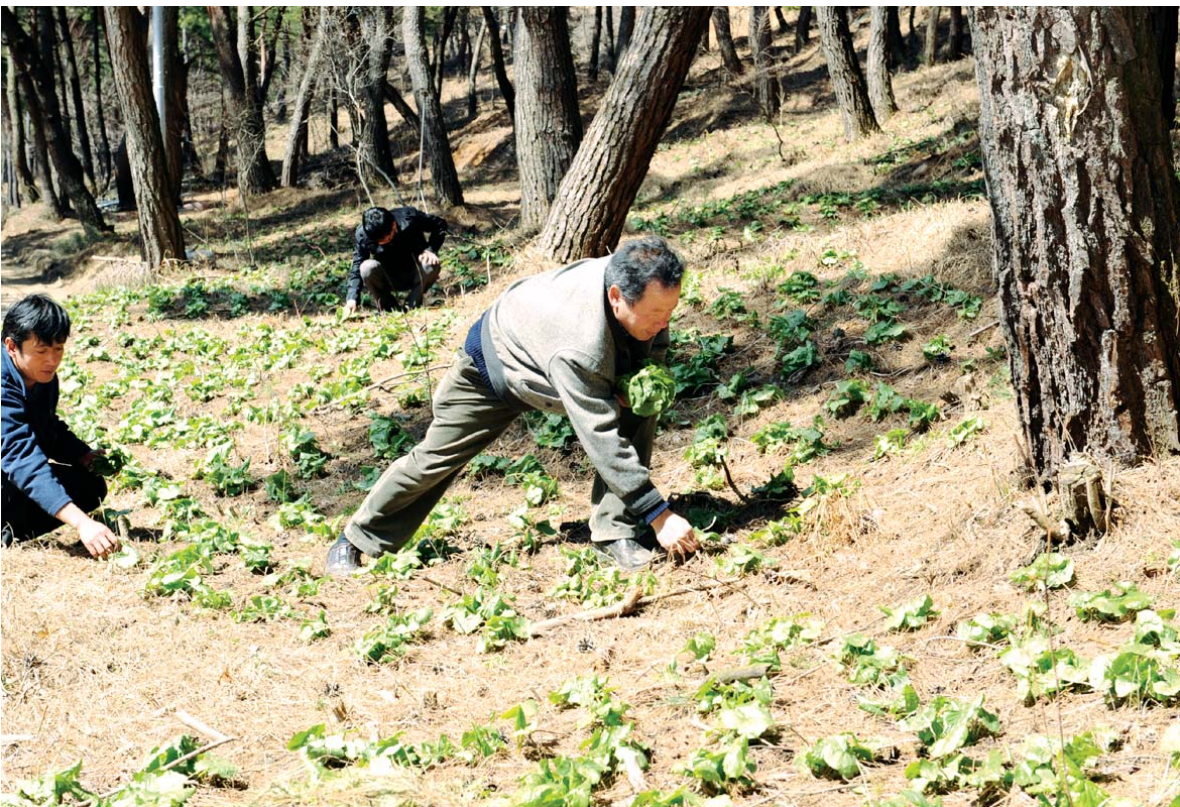
39농가에게 이사비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귀농자에게만 지원되던 사업을 귀촌(귀향)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올해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신청받은 결과 85건 2억6800만원의 사업을 1차로 확정했다.

확보된 9억4500만원중 이미 신청된 2억6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7700만원에 대해서는 올 안에 수시 신청을 받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도시민 유치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약용채소 ‘곤달비’ 채취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주민들이 약용채소인 ‘곤달비’를 채취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 고령지에서 재배되는 고기리 ‘곤달비’는 다른 산나물에 비해 향이 좋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단 신

전주동물원 22일까지 야간개장

전주동물원이 벅락 만개 시기를 맞아 14일부터 22일까지 야간개장을 한다.

개장 시간은 종전 오후 7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3시간 연장한다.

동물원은 이 기간에 왕벚나무 350여 그루가 있는 1.5km의 벚

꽃 거리에 조명을 비춰 밤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간에 찾는 관람객을 위해 전 주 시립예술단 공연, 당나귀 꽃마차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환상의 하모니개회, 동물먹이주기 체험 등이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흰찰쌀보리 전국 요리경연대회

군산 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사업추진단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군산 흰찰쌀보리 전국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할 팀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향토사업단 홈페이지(www.gunsanbori.or.kr)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bori.or.kr)에서 신청서를 다

운받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과 센터는 개별심사를 통해 오는 5월 4일 군산대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할 30개팀을 선정하게 된다. 문의(063-451-0060)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정읍 시기동 주민센터 새주소 사업 정착나서

오는 2014년 새주소 사업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정읍시 시기동 주민센터(동장 장인근)가 새주소 사업 조기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센터는 새주소를 적을 수 있는 벼파개를 제작해 모든 민원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있다. 새주소 사업은 지난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 주소체계의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 기준을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뀌는 사업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서부지방산림청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 단속을 벌인다. 또 산물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거나 임산금지구역에 들

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정읍 예술제 개막

벚꽃가요제 등 다채

‘제16회 정읍 예술제 및 벚꽃길 문화공연’이 13일부터 22일까지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13일 저녁 7시30분 기념식을 시작으로 내장산 벚꽃가요

제·설창과 명인 이영상 추모 예술제·흥겨운 국악·농악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옹동 출신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58회인 줄타기 예능보유자 김대군의 ‘관골’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불법 노점상 단속·불법 주정차 예방 등 행사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상춘객과 시민들이 행사를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